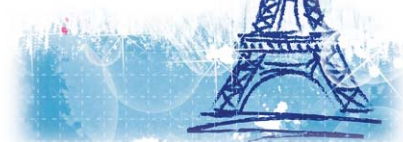




세계의 문화수도

파리 오디세이

〈1〉
〈프롤로그〉문화수도 광주
광주일보와 함께

루브르 박물관과 피라미드 전경. 유리로 된 피라미드는 1989년 건설 당시 에펠탑과 마찬가지로 흠뻑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지만, 지금은 명소로 자리잡았다. 문화 사업에 있어 프랑스인들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예다.
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낭만의 거리 걷다보면 누구든 보들레르가 된다



즉시입주가능! (구 49형)

명품아파트 마지막 20세대 분양!



*상기 이미지는 소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발코니 확장

천정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

전세대 남향배치



분양세대: 舊 49py 330세대 • 시행사 **RF VISION** (주)에스엔에스비전 • 시공사 **금호건설** (주) **전용기업** (주)

THE RUBENS
진흥 더 루벤스

금호동 진흥 더 루벤스

분양문의 062) 352-9595

연초면 으레 프랑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기사가 있다. 지난해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객 수, 세계를 덮치고 있는 불황의 그림자는 프랑스인들의 얼굴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, 통계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문화 본능이 허리띠 졸라매는 것과는 크게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
프랑스 문화부와 파리시 등에 따르면 2011년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객 수는 2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5% 상승했다. 루브르 박물관(880만명), 베르사유 박물관(650만명), 퐁피두 센터(360만명), 오르세 미술관(310만명) 순이었었는데, 오르세 미술관의 경우 개관 이후 처음으로 내국인 비율이 57%로 외국인보다 많았다.

2011년 한 해 동안 영화관을 찾은 프랑스인은 2억156만명으로 전년 대비 4.2%의 상승률을 찍고, 1966년 이래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. 프랑스 인구가 6000만명에 못 미친다.

그렇다면 약간 고리타분하고, 입장료가 10 유로 안팎인 박물관이나 영화관에 비해 비싸기까지 한 연극은? 파리 시립극장장 에마뉴엘 드마르씨-모타씨는 “프랑스 연극계가 (문화혁명이 있었던) 1968년 이후 최고의 해를 보냈다”고 말했다. 특히 지난해 파리 연극 축제 관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89%를 기록했다.

하지만 이 같은 파리 시민들의 왕성한 문화 활동 현상만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세계의 문화중심으로 부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. 도시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문화적 아우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 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.

파리가 프랑스의 수도로 지정된 것은 약 1000년 전부터다. 센 강에 떠 있는 시테 섬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도시 파리는 12세기 루브르 궁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중앙집권 왕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수도로 기능하기 시작했다.

왕권이 강해질수록 파리로 그 기능이 더 다양해지고, 더 강력해졌다. 정치, 사회, 경제, 교육,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. 이 현상은 절대 왕정이던 18세기를 거쳐, 여러 차례 혁명으로 시민들의 억압된 욕구가 분출했던 19세기 정점을 이뤘다. 1801년 54만8000명이던 파리 시 인구는 1901년 271만5000명으로 단 한 세기 동안 다섯 배 이상 늘었다. 2009년 현재 인구가 220만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.

런던보다 40년 가량 늦었지만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시행과 함께 파리의 겉모습이 확 바뀌었던 시기가 19세기다. 이후 오스만 남작이 주도한 파리의 도시계획은 베를린이나 비엔나와 같은 다른 유럽 대도시들의 모델이 됐다. 당시 조성된 주요 도로, 공원 등 도시의 뼈대는 10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.

작가나 화가 등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파리로 몰려들었다. 이들은 문학, 미술, 연극, 건축, 사진 등 거의 전

분야의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도시 자체를 ‘문화 백화점’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. 작품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법정까지 서야했던 시인 보들레르는 파리와 파리지앵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도시에 숨을 불어 넣었다.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파리를 ‘19세기의 수도’라고 비유했다.

파리를 누비며 보들레르가 느꼈던 낭만과 여유가 그 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. 반대로, 세계인들이 그의 느낌을 공감했기 때문에 파리를 예술과 낭만이 숨쉬는 세계의 문화 중심으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.

19세기 이후 문화의 중심은 뉴욕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. 그러나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파리의 영화는 현재진행형이다. 박물관의 명화를 감상하기 위해, 소설 속 무대를 걷기 위해, 영화의 배경을 찾아가기 위해 해마다 몰려드는 수천만의 방문객이 그 증거다.

문화의 홍수 속에 살며 그 맛을 본 파리지앵들이 문화의

몇백년전 성당·노천카페·박물관

예술가들 숨결 도시 곳곳 그대로

지난해 박물관 관람객 2700만명

문화아우라 견고...불황도 비켜가

가치를 현대에 계승 발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인다.

전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파리의 매력은 몇 백년된 건물들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다. 방문객들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도시에서 보고 듣고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. 파리가 방문객들을 사로잡는 도시의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게 되기까지 훌륭한 유무형의 문화 유산들을 가꾸고 포장한 후손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.

‘아시아 문화중심도시’를 꿈꾸는 광주와 시민들이 문화 도시 파리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농쳐선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.

파리=정성필 객원기자
sphilejong@gmail.com



파리 드 마고 카페. 철학자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글을 쓴 곳으로 유명하다.